

제주경제 '한파'...연말 경기도 풍풍

# 내수 부진·인건비 상승 기업경기 전망 어둡다

한은 제주본부 11월 기업경기 조사

업황전망 BSI 62로 전월비 2P 하락

12월은 61로 조사...업체 부정적 전망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 23%로 1위

제주지역 기업들이 이달 경기가 지난 달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1월 제주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업황전망BSI는 61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고자 작성되고 있으며 각 업체의 응답을 지수화한 것이다.

BSI가 기준치인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업종별로 12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56으로,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62로 11월에 비해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11월 제주지역 업황BSI는 6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하면서 이달 제주지역 기업의 업황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BSI는 64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 업황BSI는 6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제주지역 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22.9%)을 첫손에 꼽았으며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16.6%), 자금 부족(10.0%)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 제주생영농조합법인, 농촌융복합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제주 전통주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히고 있는 제주생영농조합법인(대표 김숙희)이 정부 주관 '2023년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제주생영농조합법인은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등 기존의 제주 전통주를 기반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특산주인 '니모메', '바피'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해 차별화된 누룩을 개발하고, 쉐다리, 오메기떡, 각테링 체험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제주 전통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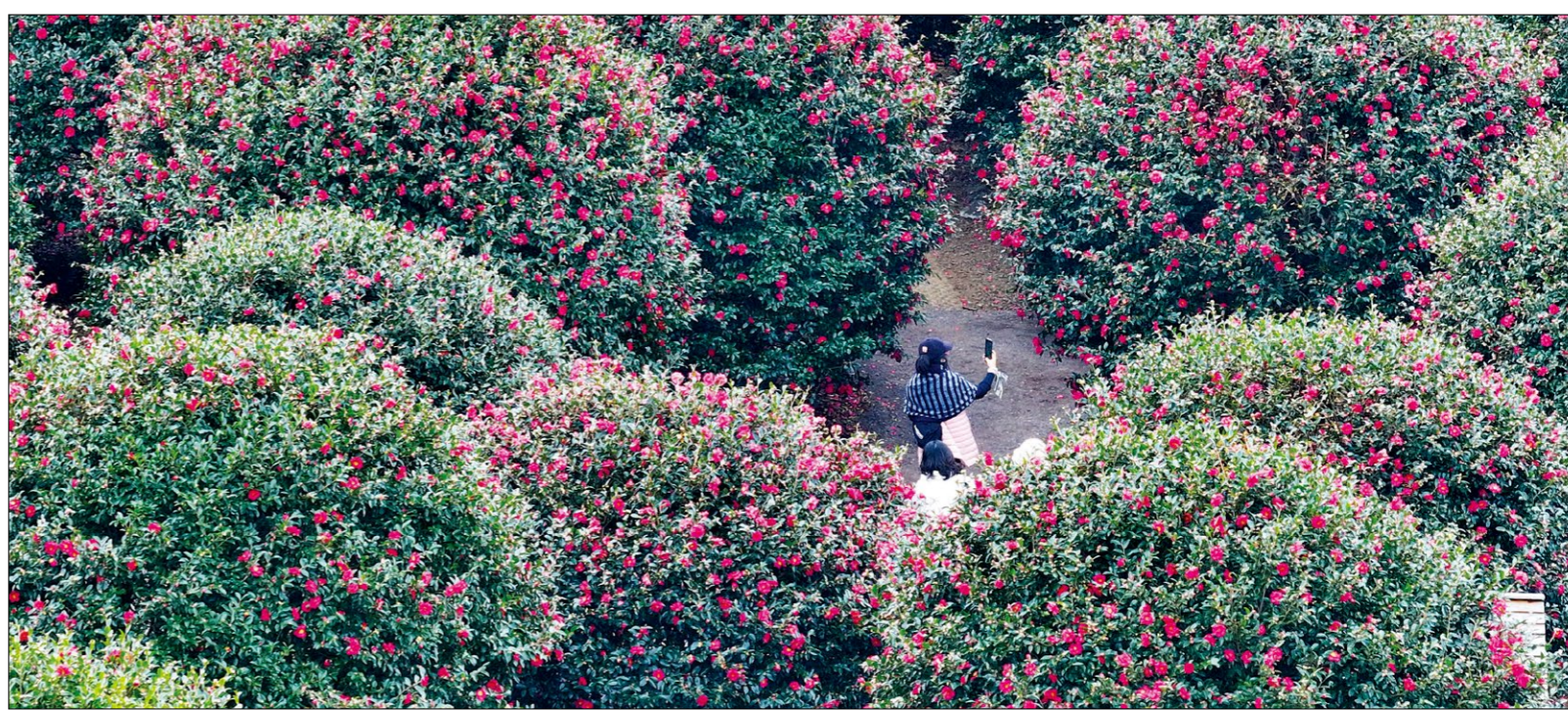
인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사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생영농조합법인은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면서 주류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찌꺼기(술지게미)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 배포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장애인 및 어르신에게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백혈병소아암협회 및 지역 초등학교에도 꾸준히 기부하면서 202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가 은상을 수상한 이래 ▲2017년 굴항영농조합법인(전 신효생활개선회) 장려상 수상 ▲2019년 제주물마루원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장려상 ▲2020년 한울영농조합법인(보름앗) 최우수상 수상 ▲2021년 농업회사법인 유진광주식회사 우수상 수상 ▲2022년 한라산아래첫마을 최우수상 수상 등 꾸준히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동백꽃 필 무렵 30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백포레스트를 찾은 관광객이 동백나무 숲에서 제주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생산·소비 지표 동반 하락...경기 침체 방증

제주지역 생산 지표와 소비 지표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역경기 침체를 방증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제주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11.3%, 지난달과 비교해서 10.7% 감소했다.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7월과 8월 잇따라 감소했고 9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지난 10월 도내 광공업 생산은 전자·통신(161.5%), 비금속광물(11.8%)에

서 증가했으나 음료(-29.4%), 의약품(-27.5%), 전기가스업(-5.1%)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지난 10월 제주지역 공공업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늘었다. 전자·통신(104.6%), 비금속광물(1.3%) 출하 실적이 늘었다.

소비 지표인 지난 10월 제주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4.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줄었다.

상품군별로 가전제품(5.2%), 화장품(4.2%)에서 소비가 늘었으나 신발·가방(-25.7%), 오락·취미·경기용품(-9.2%), 의복(-1.9%) 소비가 감소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 동물용 기생충약 펜벤다졸 생체 내 항암효과 없어

동물용 기생충약인 펜벤다졸이 생체 내 항암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대학교는 수의과대학 주홍구 교수 연구팀이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연구한 결과 암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실험(in vitro)과 마우스 종양모델을 이용한 생체 내 실험(in vivo)에서 서로 다른 항암효과를 보

였다고 30일 밝혔다.

펜벤다졸은 암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였지만 실제 생체 내 마우스 종양모델 실험에선 항암효과가 전혀 없었다. 자세한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결과 펜벤다졸이 2형 대식세포와 면역억제 단백질질을 증가시켜 오히려 면역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암환자에게 펜벤다졸을 투여했을 때 암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동물 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인 CHOP은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였다.

2019년 세계적으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알려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서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생체 내 항암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연예인이 2년 전 암 투병 중 펜벤다졸 복용 사실을 알려 관심을 끌었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ilbo.net

### 수 축 상

## 법무부장관표창



**최 원 철** 본회 감사  
(유리네식당 대표)

범죄피해자지원·보호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표창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임직원 일동

### 수 축 상

## 국무총리 표창



**강 원 호**  
(제주도약사회 회장 / 도리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아라동 대한약국 대표약사)

**국무총리표창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호 강 문 회**

### 수 축 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김 철 수**  
(대림가스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마 음 회**  
회 장 고 순 철 외 회원 일동

### 수 축 상

## 대통령표창



**김 중 환**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원 일동**  
제주시동부지구회장 김동호 / 제주시서부지구회장 안승진 / 서귀포동부지구회장 문형무 / 서귀포서부지구회장 김수남